

'메이저' 김세영, US여자오픈 우승 이룰까?

“US여자오픈 품어야 꿈에 가까워진다”

지난 10월 'KPMG 챔피언십' 정상 명예의 전당 포인트 쌓는 등 혜택 세계랭킹 2위...생애 첫 1위 기회도



10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 이어 11월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성공했던 세계랭킹 2위 김세영이 10일(한국시간) 개막하는 US여자오픈 출격을 앞두고 있다. 상상을 뛰어넘어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다면 세계랭킹 1위와 시즌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AP뉴시스

남자 골프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가 마스터스라면, 여자 선수들에게는 단연 US 여자오픈이다. 오랜 전통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 우승은 여자 선수들이 꼭 갖고 싶어하는 타이틀이다.

세계랭킹 2위 김세영(27·미래에셋증권)에게도 마찬가지다. 10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첫 메이저 퀸에 오른 김세영은 일시 귀국했던 11월 초, "US여자오픈 우승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US오픈에서 우승하면 명예의 전당 포인트를 받는 등 원하는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신인상을 받고 2015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화려하게 데뷔한 뒤 매년 우승을 차지하며 꾸준한 활약을 펼치기도 그동안 US여자오픈에서는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던 터라 간절함은 더 크게 느껴졌다. 김세영이 US여자오픈에서 거둔 개인 최고 성적은 2017년의 공동 8위였다.

11월 초 "US여자오픈에 모든 초점을 맞춰 컨디션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던 김세영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뒤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성공하며 'LPGA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예정대로' 지난 주말 열린 발렌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식에 불참했다. 10일(한국시간) 휴스턴 챔

피언스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US여자오픈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VOA 클래식 결과와 반영돼 8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김세영은 평점 7.38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위를 지켰다. VOA 클래식에서 5위를 기록한 1위 고진영

(25)의 평점은 7.79에서 7.69로 떨어졌다. 둘 간의 격차는 지난 주 0.41에서 0.31로 또 줄어들었다.

2020시즌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박인비(32·KB금융그룹)와의 구도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7주 만에 실전에 나선 박인비는 VOA 클래식에서 공동 2위에 오르며 시즌 상금(118만7229달러·12억8000만 원)과 올해의 선수 포인트 102점이 됐다. 김세영(113만3219달러·106점)은 상금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고, 1위를 지킨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는 턱밑까지 쫓기는 입장이 됐다.

김세영은 펠리컨 챔피언십 우승 뒤 "최근 2개 대회 우승의 좋은 기운을 이어간다면 US여자오픈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며 "올해 당초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었는데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세계랭킹 1위로 목표를 바꿨다. 아직 받아보지 못한 개인 타이틀도 거머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를 앞두고 US여자오픈 우승과 세계랭킹 1위, 그리고 개인타이틀 획득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노리고 있는 김세영. 그가 마음 속 깊이 간직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회장사 부문 시상 후 양공선수 기보배,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TV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제1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

회장사 부문 3개·후원사 부문 7개 기업 수상



대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이강래)가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국내 아마추어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한 회원종목단체 회장과 후원사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신선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및 회원종목단체 재정 자립에 기여한 기업 중 회장사 부문 3개 기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후원사 부문 7개 기업(대한체육회장 표창) 등 총 10개 기업이 수상했다.

회장사 부문 수상 기업은 ▲현대자동차(대한양궁협회) ▲SK(대한핸드볼협회) ▲한화갤러리아(대한사격연맹)이며, 후원사 부문 수상 기업은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대한골프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양궁협회) ▲엘지유플러스(대한양구연맹) ▲하나금융그룹(대한루지경기연맹) ▲동성통상(대한배드민턴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KB금융그룹(대한빙상경기연맹) ▲신한금융그룹(대한스키협회)이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회장사 및 후원사의 공적 기간과 재정 기여도, 종목단체 발전 기여도, 국제스포츠경쟁력 강화 기여도, 경기력 향상 기여도 등 총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메세나 공헌 활동을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기업들의 스포츠메세나 활동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회원종목단체와 후원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2관왕 김태훈 vs 2승 김한별...선수들이 뽑은 여제는 김효주 vs 최혜진

2020 동아스포츠대상 남녀프로골프 올해의 선수는?

올해 필드 위에서 가장 빛난 남녀 최고의 별은 누구일까.

2009년 첫 수상자를 배출한 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CMS와 함께하는 2020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펼쳐진다. 동아스포츠대상은 5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남녀농구·남녀배구·남녀골프) 선수들의 투표를 통해 종목별 올해의 선수를 선정한다. 탁월한 실력과 함께 뛰어난 인성까지 갖춘 선수만이 올해의 선수 영예를 차지한다. 5개 종목, 총 8명의 최고 선수에게는 각 1000만 원의 상금과 기념 트로피가 주어진다.

프로골프 올해의 선수 투표에는 올 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한 남녀 각 30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제네시스 대상과 제네시스 상금왕을 차지한 김태

훈을 비롯해 올 시즌 유일한 다승자(2승)로 대상과 상금 랭킹에서 각각 2위에 오른 김한별(골프존), 대상 5위이자 2019년 동아스포츠대상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 문경준(휴스)이 남자 프로골프 올해의 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대상과 상금 부문에서 나란히 3, 4위에 랭크된 이재경(CJ오쇼핑)과 이창우(스릭스)도 올해의 선수로 뽑히기에 손색없는 활약을 펼쳤다.

여자 프로골프 올해의 선수 경쟁은 김효주와 최혜진(이상 롯데)의 양강 구도라고 볼 수 있다. '꾸준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장하나(BC카드), 이번 시즌 '루키돌풍'을 일으킨 신인왕 유해란(SK네트웍스), 데뷔 첫 우승과 함께 2승을 수확한 안나린(문영그룹) 등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아무래도 무게추는 김효주와 최혜진에게 기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김태훈 김한별



김효주 최혜진

19) 팬데믹 속에 국내에서 모처럼 풀 시즌을 소화한 김효주는 6월 롯데칸타타 여자오픈과 10월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상금왕과 함께 평균타수 1위를 차지했다. 올 시즌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으며 적잖이 마음고생을 했던 최혜진은 시즌 최종전인 SK텔레콤·ADT캡스 챔피언십에서 정상을 밟으며 3년 연속 대상 수상과 함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김효주는 2014년, 최혜진은 2019년 동아스포츠대상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역대 수상자 중 두 번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는 김하늘(2011년·2012년), 이

정은(2017년·2018년) 두 명 뿐이다. 김효주와 최혜진, 둘 중 누가 동아스포츠대상 여자 프로골프 세 번째 '말티 수상자'가 될지 주목된다. 수상자는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된다. 김도현 기자

●주최 :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채널A, CMS(센트럴메디컬서비스)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코리아,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하이원리조트, 1879Golf, 히로마쓰토

sports21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여자프로농구 (8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우리은행	11	8	3	0.727	0	5승
2	KB스타즈	10	7	3	0.700	0.5	1패
3	삼성생명	11	6	5	0.545	2	2승
4	신한은행	10	5	5	0.500	2.5	1승
5	하나원큐	11	3	8	0.273	5	1패
5	BNK 썬	11	3	8	0.273	5	5패

남자프로농구 (7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오리온	17	10	7	0.588	0	4승
1	SK	17	10	7	0.588	0	1패
1	KCC	17	10	7	0.588	0	3패
4	인삼공사	16	9	7	0.563	0.5	2승
5	현대모비스	17	9	8	0.529	1	1승
5	전지랜드	17	9	8	0.529	1	5패
7	KT	18	9	9	0.500	1.5	6승
8	삼성	18	8	10	0.444	2.5	1패
9	LG	17	7	10	0.412	3	1패
10	DB	18	5	13	0.278	5.5	1승

해외축구 (8일)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득점	선수	팀	득점
1 토트넘	11	24	7	1	3	① 칼버트-린인	에버턴	11	10
2 리버풀	11	24	7	1	3	② 손흥민	토트넘	11	10
3 첼시	11	22	6	1	4	③ 바디	레스터시티	9	9
4 레스터시티	11	21	7	4	0	④ 실라	리버풀	9	9
5 사우스햄튼	11	20	6	3	2	⑤ 벨포드	리즈	8	8
6 맨체스터Utd.	10	19	6	3	1	⑥ 케인	토트넘	8	8
7 맨체스터시티	10	18	5	2	3	⑦ 윌슨	뉴캐슬	7	7
8 웨스트햄	11	17	5	4	2	⑧ 지하	크리스탈팰리스	7	7
9 에버턴	11	17	5	4	2	⑨ 페르난데스	맨체스터Utd.	7	7
10 울버햄튼	11	17	5	4	2	⑩ 윌킨스	맨체스터Utd.	6	6
11 크리스탈팰리스	11	16	5	5	1	⑪ 인스	사우스햄튼	6	6
12 맨체스터Utd.	9	15	5	4	0	⑫ 글리쉬어	맨체스터Utd.	5	5
13 뉴캐슬	10	14	4	4	2	⑬ 조타	리버풀	5	5
14 리즈	11	14	4	5	2	⑭ 마네	리버풀	4	4
15 아스널	11	13	4	6	1	⑮ 마레즈	맨체스터시티	4	4
16 브라이튼	11	10	2	5	4	⑯ 모페	브라이튼	4	4
17 풀럼	11	7	2	8	1	⑰ 버너너	첼시	4	4
18 버니	10	6	1	6	3	⑱ 보벤	웨스트햄	4	4
19 웨스트브롬위치	11	6	1	7	3	⑳ 워드	사우스햄튼	4	4
20 셰필드Utd.	11	1	0	10	1	㉑ 주마	첼시	4	4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사우스햄튼 2 - 1 브라이튼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호펜하임 3 - 1 아우구스부르크

NFL (8일)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북부지구	승	패	순위	남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버펄로	9	3	1	피츠버그	11	1	1	데카터	8	4	1	캔자스시티	11	1
2	마이애미	8	4	2	볼티모어	9	3	1	인디애나폴리스	8	4	2	라스베이거스	7	5
3	뉴잉글랜드	6	6	3	볼티모어	6	5	3	휴스턴	4	8	3	덴버	4	8
4	뉴욕	0	12	4	신시내티	2	9	4	잭슨빌	1	11	4	LAC	3	9

오늘의 토토 (9일)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2.09 (수) 19:00	KB스타즈	vs	신한은행	청주체육관
1	12.09 (수) 19:00	대한항공	vs	삼성화재	인천계양체육관

경기 예고

남자-여자프로농구 (9일)

2020-2021 현대모비스 KBL	LG	〈창원실내〉	전자랜드
오후7시, SPOTV2, SPOTV ON			
2020-2021 KB국민은행 Liiv M WKBL	KB스타즈	〈청주체육관〉	신한은행
오후7시, KBS스포츠			

프로배구 (9일)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	〈인천계양〉	삼성화재
오후7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9일)

농구	●2020-2021 KBL D리그 1차(인천 LG챔피언스파크) *KCC-상무(오후2시), SK-현대모비스(오후4시)
씨름	●2020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정음시국민체육센터, 오전11시)